

# 근대기 인천지역 주거건축 연구

## A Study about House Building Modern times in Incheon City

손 장 원\* 차 동 원\*\*  
Sohn, Jang-Won Cha, Dong-Won

### Abstract

In the study results, Incheon region, a classic house was consistently built in spite of having been the barrier which a foreign dwelling flowed into until 1960's. And met me in our dwelling habit and changed and used a house built by the Japanese. That is, the traditional dwelling format worked with a spindle accepting other dwelling culture and can do it. It was a too social change and was able to confirm the fact that it extended a room as necessary or it improved a classic house and used as West back various way whom it got cold, and exchanged it to a kitchen of a cause and effect life.

키워드 : 근대, 전통주택, 일본식주택, 중국식주택, 서양식주택, 인천

keywords : Modern, Traditional House, Japan House, China House, Western House, Incheon city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집은 거주자의 행태와 정신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단순한 물리적 형태를 넘어 문화적 가치로 간주되어 주거학이나 건축학의 중심적 연구대상이다. 또한 사회학이나 문화론의 중요한 담론 중의 하나이다. 인천은 개항과 더불어 밀어닥친 새로운 외래의 주거문화를 가장 먼저 만난 고장으로 이러한 외래 주택은 인천지역의 주거 문화에 많은 문화적 충격을 던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개항기 인천의 모습으로 정형화된 대지 위에 세워진 직선형의 양관들과 어지럽게 산재한 전통가옥의 둥글둥글한 형태가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외래주택의 유입이 우리의 자발적인 것이 아닌 침략과 수탈이라는 이해관계와 어우러져 전개됨으로써 문화적 충격 그 이상의 것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말 이후 해방에 이르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래 주택이 건축된 인천에서 전통주택의 유형과 그 변화과정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살림집은 전통적 살림집, 불량주택 및 아파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70년대 이후에 공급되어, 주로 주택건설업자로 대표되는 공급자의 경제적 입장을 감안한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 살림집이나 불량주택은 거주자의 편의나 생활 문

화적 특성이 보다 강하게 주택평면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층민의 주거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살림집이나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타 도시에 비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심지에 있던 전통 살림집은 대부분 개발에 의해 사라져 건립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나마 현존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평면의 변형이 심하여 원형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공업화 과정 속에서 진행된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불량주거지의 경우도 재개발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살림집 평면유형과 도시화에 따른 평면의 변화유형을 살펴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고찰 및 연구방법

인천지역 살림집에 대한 연구는 중부지방이나 서해도 서지역 살림집에 대한 연구에 가려 인천지역의 살림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주택의 개조나 증축에서 나타나는 평면의 변화유형은 주거 문화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도시재개발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불량주택에 대한 연구는 도시빈민정책 차원에서 다소간의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만, 주거 유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외래의 주거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의 역할을

\* 정회원, 재능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조교수  
\*\* 정회원, 재능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부교수

담당한 인천지역 주거문화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의 문화적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근대주택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8세기 말에서 1960년대 초로 한정하여 진행했다<sup>1)</sup>. 주거유형은 건축원인에 따라 전통주택, 불광주택, 일식주택, 중국식 주택, 양식주택으로 구분했으며, 주택의 평면은 각종 문헌에 수록된 자료와 실측자료를 근간으로 공간구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 II. 우리나라 근대주택의 형성과 전개

주택평면의 변화는 외적 영향에 의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과거부터 지속되던 생활양식이나 주택구조가 급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재래주택의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요소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면변화의 유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동시대의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평면 유형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지속’, ‘동화’, ‘토착화’라는 패턴이 있다. 즉 우리나라 근대기의 주택은 재래와 외래, 전통과 근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는 재래질서의 특성과 문화가 근대와의 충돌과 조정을 거쳐 새로운 근대 주거유형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개항이후 본격적인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생  
표 1) 1897년 당시의 외국인 가옥 수

(단위 : 호)

지역	일본인 가옥	청국인, 구미인 가옥	조사일
인천	770	848	3월 16일
원산	357	22	
서울	622	205	4월 1일

(자료 : 신영훈 외 2인, 우리건축100년, 현암사, 2002, p.54)

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개항과 더불어 출현한 일식주택과 해방이후 급격히 유입된 서구건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개항과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지내에 주로 상업이나 공무로 파견되거나 이주한 일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했다. 초기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일식재래주택을 그대로 건축해 살았다<sup>2)</sup>.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일부 다다미식 방에 온돌을

설치해 개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식주택의 원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외국 주택의 건축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로 개항(시)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이 건축되어 이들 지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충격은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1897년 3월 16일에 실시된 외국인 가옥조사에서 인천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옥 수는 일본인 가옥 770호, 청국인 및 구미인 가옥 848호였다. 외국생활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이나 자본가들도 일본의 다소 근대화된 일식주택이나 화양식(和洋式)주택, 양식주택을 답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주거문화의 유입과 일본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일식이나 서양식 주거문화는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3.1운동이후 1920년경부터 일제는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친일파를 양성하는 등 본격적인 동화정책을 펴나간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거건축에도 점차 외래문화에 동조하여 절충식 주택이 등장한다. 당시에 나타난 절충형식은 한식과 일식의 절충 또는 양식과의 절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한일절충식의 경우 온돌이 있는 한식동과 다다미, 속복도 등이 있는 일식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1930년대 전문주택업자에 의해 건축된 서울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량한옥은 아직도 홑집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중상류층 대부분의 주택에서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새로 등장한 주거형식을 채용하기도 하였지만, 전통적 평면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1941년 심각해진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주택영단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영단은 제1차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참여로 자재의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영단주택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의 표준설계안을 작성하였다. 1차 년도에 제안된 5개의 유형은 갑형(20평형)부터 을형(평형), 병형(평형), 정형(평형), 무형(평형)이었다. 당초 조선주택영단의 건설목표는 연간 5,000호씩 5년간 2만호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일제 말 전시체제라는 사회적 상황으로 건설이 거의 중단되어 실제로는 약 12,000호를 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영단주택은 목조 기와지붕이었고, 일본식이다 우리나라 전통적 특성을 가미한 것이었다. 기초는 지하 3척의 줄기초를 사용하고 대량생산에 맞게 시멘트 기와를 쓰고 벽은 일본식의 오오카베(大壁)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식 주택은 조선에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선식 주택에 관한 연구와 조선에서 일본인의 생활적응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에 온돌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

1) 1960년대 초까지에도 민간에서는 대부분 재래식 주택을 건축하였다.(유재우,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주택 평면형의 변화특성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7호, 64쪽)

2) 유재우, 「광복전후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변화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0호, 59-61쪽

3) 김윤기의 건강주택 안(1930년), 박길룡의 개량주택 안(1935년), 오영섭의 조선풍 주택당선 안(1937년) 등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홑집을 겹집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개량주택의 특징은 홑집을 겹집으로 변화하였고 현관, 욕실, 거실, 응접실 등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였다.

되었다. 따라서 1940년대에 이르러 온돌의 설치가 일반화 되어, 온돌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주택에의 설치와 시공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단주택에도 방 하나에 한하여 온돌이 설치되었다. 평면구성은 살림채 내부에 모든 주거공간을 갖춘 집중식 주거로서 일본식 주택평면을 따르고 있다. 갑형, 을형, 병형에는 욕실이 내부화되었으나 정형, 무형에는 욕실은 없고 화장실은 내부화되어 있다. 각 세대로 진입하는 현관을 따로 마련하고 부엌에서 온돌난방이나 온수의 열공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병형, 정형, 무형은 2호 연립으로 짜여져 블록을 구성하였다. 영단주택은 표준주택 안이 먼저 계획되고 그에 따라 공급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사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리고 표준주택안도 영단주택이나 철도관사 등의 관사류의 것 모두 매우 흡사하다. 관사도 거주자의 직위에 따라 주택의 등급이 결정되는 주택의 등급과 주택의 면적, 실의 구성 등이 다르게 계획되었다. 표준주택 안이 미리 선정되어 그것을 토대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건설과정에서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4)</sup>.

### III. 근대기 인천지역의 주거형태

#### 3.1 인천지역 전통살림집의 배치형태

인천지역의 전통주택은 그 형태에 따라 일자집, ㄱ자 집, ㄷ자 집 ㄴ자 집, 꺾리집이라 불리는 □자 집이 있다. 일자집은 방1~2개, 부엌, 봉당, 마루로 구성된다. 그림 1)의 일자집은 강화도에 위치한 집으로 해방이후에 건립되었으며, 면적은 25.39㎡의 비교적 소규모의 집이다. 이 집은 부엌에 방2개를 연달아 배치하고 건넌방 뒤에는 헛간을 달아 댕감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 앞에는 봉당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섬 집과 달리 개방형 배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자집 중에서도 공간분화가 이루어진 살림집이다. 건넌방 앞에는 대청마루와 연결하여 뒷마루를 두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동선의 단축과 추위를 막기 위해 부엌에서 바로 대청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청마루를 연장하여 부엌과 연결하였다. 다른 공간에 비해 부엌면적이 넓은 것은 그릇이나 반찬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댕감을 보관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일자형 구조에 비해 ㄱ자집은 지붕구성방식이 어렵고 평면의 구성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또한 기둥간격을 안방과 부엌의 크기에 따라 배치하였다. 다음은 꺾리집이다. 연구대상인 꺾리집은 정남향 꺾리집으로 건립연대는 1930년대이며 면적은 98.31㎡이다. 다른 평면유형의 주택에서처럼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하고 안방에서 보를 꺾어 부엌을 달았다. 실의 구성은 방3개(안방, 건넌방, 문간방), 부엌2개와 대

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넌방 앞 부엌과 문간방은 각각 광과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을 들이고 난방을 위한 부엌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양간에 방을 들이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증가나 세를 놓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도시에 입지한 전통주택평면을 이용한 개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ㄱ자집은 중구 남북동 868번지에 위치한 정남향 집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립연대는 1890년<sup>5)</sup>이다. 안채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하고 안방 앞에 부엌을 달았으며 부엌 천장에는 안방에서 출입이 가능한 수장 공간을 두었다. 대청마루는 6칸으로 상당히 규모를 갖춘 주택임을 알 수 있으며, 대청 뒷벽에는 벽감을 설치하여 위패를 봉안할 공간을 두었다. 안방과 건넌방에는 뒷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다른 집들과 달리 대청마루와 부엌을 연결하지 않고 안방 뒷마루를 연결하고 있다. 사랑채에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을 배치하고 큰 사랑방과 연결하여 행랑방을 달았고 작은 사랑방 옆에는 광을 설치하였다. 큰 사랑방에는 협문을 달아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안채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살림집으로 대문과 중문을 둔 비교적 규모를 갖춘 집으로 중문 앞에는 낮은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안채의 대청마루와 사랑채의 뒷마루에는 미세기문을 달아 추위를 막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일식주택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엌에 설치된 불박이장은 인천지역의 다른 살림집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건축당시 주요 건축자재는 서울에 있던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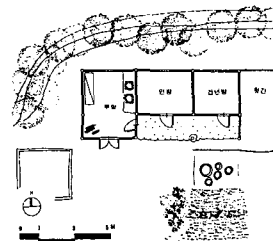


그림 1) 일자형 주택(강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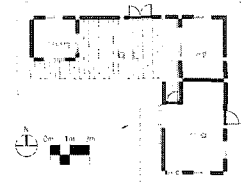


그림 2) ㄱ자형 주택(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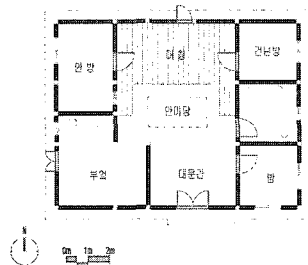


그림 3) 꺾리형 주택(용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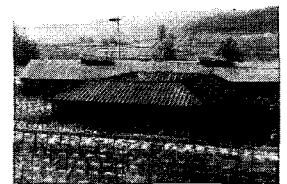


그림 4) 꺾리집 전경

4) 최원우, 「한국근대 주거건축의 근대화과정에 나타난 한인건축가들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9-38쪽

5) 상량문 : 龍 崇禎紀元後五庚寅四月十六日午時立柱上樑 子坐 龜 午向

3.2 인천지역 살림집의 평면유형

일자집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평면은 방+부엌+봉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형태는 방이나 부엌 전면에 봉당을 두거나, 봉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는 방식, 안방과 건넌방을 두고 안방 앞에 부엌을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ㄱ자 집은 대부분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고 안방에서 보를 꺾어 그 아래에 부엌을 두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건립연대가 비교적 오래된 주택에서는 마루대신 봉당이 발견되기도 하나 마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루는 건넌방 앞 뒷마루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부엌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마루나 봉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는 방식은 일자집 평면유형 가운데 하나로 ㄱ자 집이 일자에서 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ㄱ자 집의 안채는 ㄱ자 집의 평면과 동일하며, 바깥채는 대문 좌우에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을 배치하고 작은 사랑방과 연결하여 광을 두는 방식, 작은 사랑방을 큰 사랑방에 연결하여 배치하고 대문 건너편 공간에는 외양간이나 광을 배치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사랑방 앞에는 뒷마루를 두었다. 평면유형은 ㄱ자형이 주류를 이르면 다음으로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형의 순이다. 이처럼 ㄱ자형 평면이 많은 것은 농업기반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 평면별 공간배치는 본채를 중심으로 앞뒤에 마당이 배치되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살림집에서도 행랑채를 두지 않았고 사랑채가 이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서울 등 대도시나 인천도심 지역에서는 개량한옥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생산방식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랑채의 기능이 점차 둔화되었지만 농촌지역에 위치한 살림집에서는 사랑채의 기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채의 평면은 여러 평면유형에 불구하고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고 안방에서 보를 꺾어 그 아래에 부엌을 두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부엌의 기능을 취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수장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루와 부엌이 만나는 곳에는 마루를 부엌으로 넣어 기능상의 편리와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방식은 경기도 지방 전통살림집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인다<sup>6)</sup>. 이러한 방식은 인천지역 전통 살림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대청마루를 부엌으로 연장하거나 안방 뒷마루를 부엌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마루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공간으로 공간적으로는 안마당과 뒷마당인 개방공간을 연결하는 반 개방적 공간으로 작용하면서 안방과 건넌방의 중간에 위치하여 동선의 분리와 조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마루의 뒷벽에 설치된 감실과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제례행위로 신성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한 공간이었다. 영종도에 위치한 ㄱ자 집(운서동, 1935년<sup>7)</sup>)은 이러

6) 정연상, 「경기도 전통민가 안채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회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v.21, n.1  
 7) 상량문 : 龍 昭和乙亥○月十七日甲時立柱上樑 子坐午向家主癸巳生

한 평면구성방식을 비교적 완벽하게 따른 정남향집으로 뒤뜰에는 터주와 개비대감을 두었으며, 외부에는 축사와 마차간을 설치했다.

현존하는 인천지역 살림집의 평면적 특성은 18세기 후반에서 191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부엌+안방+봉당에 기본을 둔 ㄱ자형이 중심이 되며, 20세기 이후에 건축된 집들에서는 ㄷ자형과, 튼 입구자형(ㄱ자형)주택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ㄱ자 집보다 과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일자집이 1950년대까지 건축되는데 이는 낮은 생활수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섬지방의 살림집은 폐쇄형과 개

표 1) 인천지역 전통주택의 평면유형

<p>일자집(삼목도, 1956년)</p>	<p>ㄱ자집(운서동, 1834년)</p>
<p>띠리집(용종동, 1930년대)</p>	<p>ㄱ자집(옥련동, 1959)</p>

방형이 있다. 개방형은 육지집과 차이가 없으며, 폐쇄형의 내부는 개방적이고 외부에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인천지역 불량주택과 불량주거지

인천지역의 불량주거지 형성의 역사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개항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6~70년대, 현재 등으로 구분된다. 개항기에는 조계지를 중심으로 일, 청, 유럽 등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수동, 송월동, 선린동 일대로 밀려나면서 형성되었다<sup>8)</sup>. 일제강점기에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

應天上之三光 龜  
 備人間之五福也

8) 한 가지 사례로 1884년에는 청국조계가 설치되어 중국인들이 인천에서 정착하여 정치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청국조계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조계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거류지를 확대했다. 이 때문에 삼리채 거류지의 조선인 가옥철거가 문제로 대두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하루아

른 주택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흥동, 산곡동, 송의동 일대에 불량주거지가 형성되었다. 한국전쟁을 대부

분의 주택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월남인의 급증은 고지대를 비롯한 곳곳에 불량주거지를 형성하였으며 송림동, 송현동, 송월동, 도화동, 용현동, 십정동 등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6~7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은 인천지역에 많은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 많은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몰려든 농촌인구는 주택난을 더욱 가중시켜 주안, 부평 등지에 불량주거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4)는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속한 송현동 불량주거지에 위치했던 불량주택의 평면유형이다. 대부분의 불량주택이 그렇듯이 구획된 대지에 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지규모도 적은 편이다<sup>9)</sup>. 평면의 공간 구성은 세입자를 받기위한 방과 부엌의 증설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sup>10)</sup>임에도 불구하고 침실과 부엌 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나 2R+0K 유형을 제외한 모든 평면유형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나 상하에 방을 배치하고 방과 연결하여 부엌을 두는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살림집 안채의 공간구성과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 주택에 마루 중심형 평면이 차지하는 무게를 알 수 있다.

### 3.4 인천의 일본식주택

인천에 세워진 마찌야(町家)형 주택은 일본의 전통 도시주택인 마찌야(町家)와 같은 유형으로 대개 2층이며 구조는 목조이다. 나가야(長屋)형 주택은 일본의 나가야(長屋)와 같은 유형으로 1층이며 구조는 목조이다. 개항초기 인천에 세워진 일식주택들은 대부분 목조이며 점포가 달린 주택들로 마찌야 형식과 나가야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주거기능 만을 갖는 주택은 일제강점기에 관리나 사업가 등 비교적 상류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중양동 1가 16번지 2·3호의 주택은 1930년대의 건축물로 10×15m의 대지위에 세워진 3층 목조주택으로 연면적은 16-2호 36.66평, 16-3호 34.24평이며, 전체 모둘은 1M이고 전면도로에 면한 출입구에 계단이 있으며, 가장 큰 방은 다다미 6장으로 되어 있다. 3층은 2층과 동일하다. 중양동 3가 2번지 11·20호의 주택은 전면부에 점포를 두고 있지만 후면에 정원이 있는 것과 실의 배치 및 계단위치 등 평면형식은 거의 유사하다. 2-11호의 점포주택의 건축연대는 1944년이며 연면적은 26.11평의 2층 목조주택이다. 2-20호의 점포주택의 건축연대는 1940년이며 연면적은 49.27평이며 3층 부분은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일식주택의 또 다른 유형 가운데 하나가 영단주택이다. 인천지역에 영단주택은 총 5개단지 1,375호

침에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다.

9) 송현동의 경우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90㎡미만이 전체의 72%이다.

10) 송현동의 경우 건축 연면적 90㎡미만이 89.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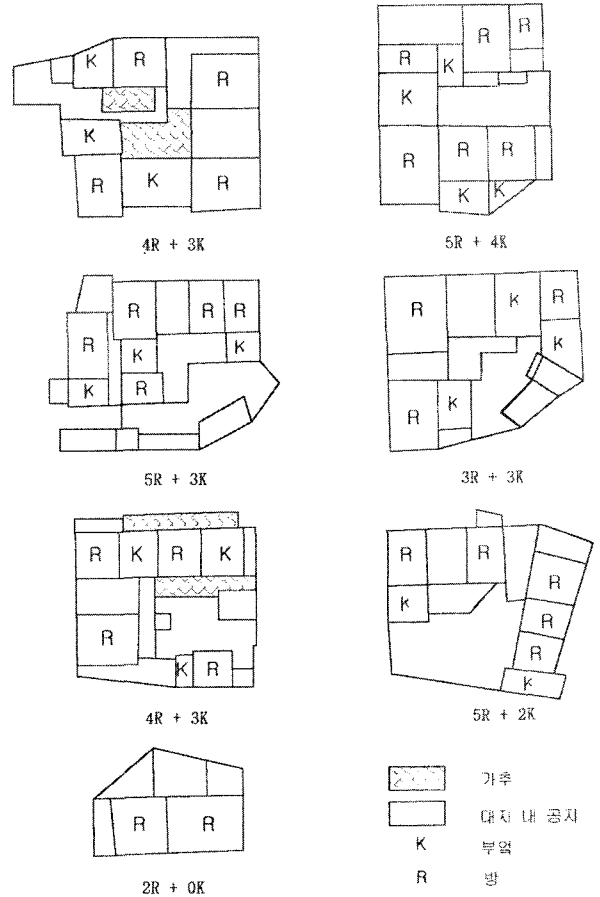


그림 5) 불량주택의 평면유형

(자료 : 이관구, 「불량주거지의 공간특성과 주거형태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2쪽)  
가 건설되었다. 송의(구 大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4개단지, 경인시가지계획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경영지구 중 부평지구에 속했던 부평구 산곡동(구 白馬町)에 1개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 가운데 송의지구에는 甲型, 乙型, 丙型, 丁型 주택이 4개 단지에 279호가 세워졌으며 갑형과 을형 만 세워진 단지도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노무자 사택 및 합숙소로 계획된 산곡동에는 정형, 무형의 소형 연립주택 1,096호가 건설되었다. 특히 산곡동 지구는 한국인 노무자만을 입주대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형 주택이 984호나 건설되었다.<sup>11)</sup>

영단주택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증축 등의 개조를 금지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바 일제강점기에는 그 변화가 미미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해방이후 많은 평면상의 변화와 증축이 이루어진다<sup>12)</sup>. 이는 주택공급자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표준화 주택에 대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한 거주자 스스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천에 건설된 영단주택은 건설된 이후 생활방식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쳤다. 우선 일식주택을 근간으로 구성된 평면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변경되었다.

11) 노상주, 앞의 논문, 20-21쪽

12)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일어난다.

## 손 장 원, 차 등 원

또한 가족수의 증가와 한국전쟁과 공업화정책으로 심화된 주택난은 대지 내 공지를 중심으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유형을 정리하면 1)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변화, 2) 전용주거에서 복합주거로의 변화, 3) 증축으로 인한 외부공간의 변화, 4) 현관에서 대문으로서 출입형태의 변화, 5) 복도형에서 마루형으로의 변화, 6) 다다미에서 온돌로의 변화, 수납공간의 변화 등이다. 이 가운데 현관에서 대문으로서 출입형태의 변화, 복도형에서 마루형으로의 변화, 다다미에서 온돌로의 변화는 이입된 외래문화가 원래의 재래적 문화로 회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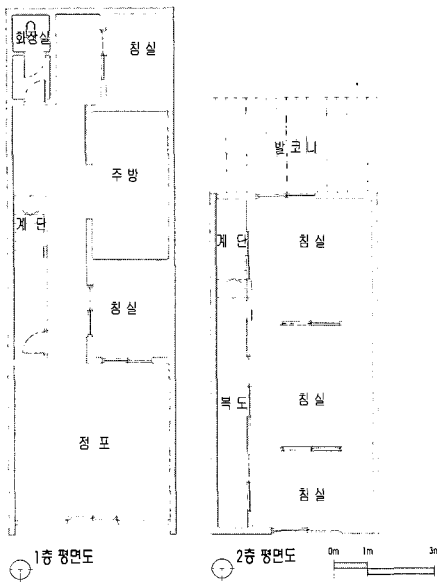


그림 6) 일식주택(중양동, 1930년대)

주) 도면의 침실에 표기된 사각형은 다다미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다.

### 3.5 중국식 주택

중국 건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사합원은 유형적으로 중정형 주택이다. 그 단위는 중정을 벽으로 둘러싸는 건물군으로 목구조 방식이 일반적이다. 사합원을 이루는 모든 건물은 중정을 향해서 개구부가 형성되지만 그 반대 면인 후면으로는 개구부가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합원의 단위가 반복하여 밀집배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사합원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주거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인천의 중국주택은 사합원 주택의 배치형식을 하나의 건축물로 축약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돌조의 점포가 딸린 벽돌조 연립주택이 주로 세워졌다. 선린동에 위치한 이 점포주택은 1934년에 건축된 것으로 연면적은 약 40평 정도이다. 평면, 입면 상 모두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전면의 미서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우에 점포가 있고, 계단은 점포 후면에 위치하여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주택과 같이 중정을 두어 일조 및 환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 3.6 서양식 주택

Schriwaum 저택은 James Johnston 별장을 짓는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세창양행의 대표사원이었던 Schriwaum이 사용했던 건물이다. 벽돌조 1층 건물이며, 건립이후 여러 차례의 개보수가 이루어져 건립당시의 평면은 알 수 없으며 현재는 벽돌 구조체와 지붕만 남아 있다. 건립당시 외부공간이었을 배란다가 내부공간으로 바뀌어 통행과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장실은 부속건물에 설치하였으며, 건립당시에도 침실은 현재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각실과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응접실, 서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 여선교사 합숙소는 미국 감리교회가 파견한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건축한 것이다. 건물의 건립연도는 1892년에서 1894년 사이로 추정되며, 설계자나 시공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469.43㎡이며 벽돌조이다. 1949년부터 사회관으로 사용되었으며, 1970년 12월에 증축된 북측의 특수교육실과 주방은 기존 건물에 붙여 건축하였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과 증축이 이루어졌음에도 건립당시의 평면은 큰 변화없이 남아 있다. 공간배치는 복도를 중심으로 필요한 실을 배치한 양식주택으로 건물 좌측에 위치한 현관을 통해 출입하며 현관 앞에 위치한 홀은 1층, 2층 동선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H.N. Allen은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부임하여 고종과 친분을 맺었다가 인천에 동서개발회사(이민회사)를 설립한 David W. Deshler의 도움으로 주한미국공사가 된 사람으로 하와이이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Allen은 인천에 자주 들렀어야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건물의 건립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벽돌조 2층 건물로 연면적은 201.86㎡이며<sup>13)</sup>, 건축적 특성과 관련된 이외의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중앙 출입구와 연결하여 복도를 설치하고 그 좌우에 기능에 필요한 실을 배치하였으며, 북측에는 원형 평면을 덧붙인 방식이다. 1층에는 식당과 응접실을 배치하고 침실이나 서재 등의 개인공간은 2층에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James Johnston 별장은 개항기 인천에 세워진 외국 주택 중 설계자가 알려진 주택이다. 독일인 건축가 Curt Rothkegel<sup>14)</sup>이 설계했다. 이 별장은 인천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인천각”으로도 불리워졌으며, 벽돌조 4층으로 연면적은 1,494.83㎡에 달하는 큰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1

13)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인천:해반문화사랑회), 2002, 108-112쪽

14) Curt Rothkegel은 중국인들이 羅克格으로 부르던 사람으로 중국 靑島의 독일 총독부 건축국 소속 건축기사였다. 로즈케겔은 칭따오와 상하이의 독일인 구락부(Club Concordia), 칭따오의 江蘇路 基督堂을 설계했으며, 그의 작품은 현재도 칭따오시에 여러 개가 남아있다. (김정동, 「아시아의 작은 독일 靑島에서 건축가 로즈케겔의 건축을 찾는다」, 『건축』, 2001, 대한건축학회, 61쪽)

층에는 홀, 응접실, 식당, 오락실 등이 있었으며, 침실은 주로 2층에 배치하였다<sup>15)</sup>. 인천의 상징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경사진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지만 내부공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중국 칭따오(靑島)에 있는 건축물에서 일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인천지역살림집 평면변화의 특징

4.1 외래주택의 영향

1883년 인천개항이후 외국인거류지를 중심으로 자국의 거리와 별반 다를 없을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섰으며 거류지별로 외국주택이 들어서 문화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오랜 세월동안 풍토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의 전통적 살림집의 근본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주거형식에 지속적인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여 한옥적 특성, 일본식 주택의 특성, 서양식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세 갈래의 주택문화가 만나 서로 영향을 미치며, 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2) 1950년대에 이어지는 단독주택 평면들은 몇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한옥형식도 아니고 일본식 주택도 아니며, 서양식 주택도 아닌 융합의 특성이 나타난다. 일본식 주택 또는 서양식 주택의 특징인 겹집형식이 일부 나타나며, 조선주택영단 표준설계에 없던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마루는 서양식 주택의 거실 성격을 일부 수용하여 거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배치되고 마당에 대하여 열린 구성이 아니라 독립적 공간인 현관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마루는 서양의 거실과 같이 독립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동선이 분배되는 한옥의 마당과 같은 성격도 갖는다. 또한 마루가 서양의 거실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중앙에 배치된다. 화장실은 주택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와 외부에 설치되는 사례가

표 2) 외래주택의 특징

구분	일식주택	중국식 주택	서양식주택
형식	점포주택	연립형 점포주택	합숙소, 시택, 별장
구조	목조	벽돌조	벽돌조, 석조
평면적 특성	다다미모듈 적용	평면과 입면의 대칭	다양(독일식, 영국식, 미국식 등)
지붕	기와	생철(합석)	생철(합석), 슬레이트, 기와 등
식당 및 부엌	좌식	입식	입식
화장실/욕실	주택 외부	주택내부(제거식)	주택내부
침실	단일용도, 복합용도	단일용도, 복합용도	단일용도
정원	대지 후면	중정	건물주변

15) 최성연의 개항과 양관역정에 수록된 평면으로 바탕으로 하였으나, 건축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에게 매각되어 호텔 겸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 장교숙소(BOQ)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립당시의 평면은 알 수 없다.

존재한다.

거실은 서양식 주택이 갖는 특징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우리의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서양의 거실에 해당하는 명확한 공간이 없으나 마루나 마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단독주택의 경우가 마루가 서양식 주택의 거실성격과 한옥의 마당성격으로 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4.2 방의 확장

방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원인은 가족 구성원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요공간규모의 확대 및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세입자들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에 설치된 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창고나 마루에 방을 설치하였으며, 외양간에 방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ㄱ자 집이 ㄴ자 집으로, ㄴ자 집이 ㄷ자 집으로 변형되었으며 안마당 상부에 지붕(가추)을 달아 실내공간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통주택의 방은 가구를 들이지 않고 생활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장롱이나 책상을 놓기에는 규모가 작아 실면적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비교적 저렴하고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쉽게 공사할 수 방법이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2개의 방을 통합하여 단일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방에 딸린 수장공간을 방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벽을 처마 끝까지 연장하는 방법<sup>16)</sup>이 사용되었다. 특히 대지가 좁아 처마와 담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담장까지 방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4.3 마루 중심형 평면에서 발전한 거실

마루가 내부 공간화하여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으로 변화된다. 대청에 카펫을 깔거나 온돌을 설치하고 소파 등의 가구를 들인 실내공간으로 변모한다. 마루가 없는 경우에는 비닐과 목재를 사용하여 건물 앞 처마 밑에 슬레이트 차양을 달아 계절에 따른 가변성을 높인 완충공간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는 생활의 변화에 대응한 건축적 변화로 기능적 요구에 대한 거주인의 대응결과이다.

4.4 부엌의 변화

부엌은 외래문화의 유입과 취사연료의 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공간이다. 전통주택의 부엌은 취사 외에 그릇이나 김치 등의 저장 및 뽕감의 보관 등의 필요에 의해 다른 실에 비해 비교적 넓은 규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가변성이 큰 탓에 많은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경제력 능력이 적은 도시인구의 급증은 월세나 전세방을 필요로 하게 되어 1개 주택에 2가구가 이상이 거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주인집과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마다 별도의 부엌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6) 지붕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지붕정사를 따라 확장함으로써 확장한 부분의 천장높이는 다른 부분 보다 낮아지며 윗부분에는 슬레이트 등의 얇은 지붕재료를 다시 추녀를 연장하였다.

재래식 아궁이는 장작의 원활한 연소와 열기를 구들로 전달하기 위한 난방구배를 확보하기 위해 부엌바닥은 부뚜막보다 낮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부엌출입에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난방 연료가 연탄으로 바뀌고 온수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부엌바닥은 더 이상 낮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땀감을 보관하던 공간도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하수도 파이프를 통해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 설치는 그릇보관 기능도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라 부엌은 완전한 실내공간으로 변화하게 되고 잉여공간에는 화장실(욕실)을 설치하거나 새로 방을 들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원래 주택외부에 설치되었던 화장실이 개조를 거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화장실은 개조 전에 찬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나 나무광으로 사용되던 곳에 배치하여 설비의 집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V. 결론

기존의 건축사 연구는 기념비적 성격의 대형건축물이나 관공서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당대의 삶이나 일반인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도외시된 것이 현실이며, 지역연구가 일천한 인천에서는 이에 대한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기층민의 삶이 갖는 문화적 특성의 하나로 표출된 주거형태인 전통 살림집 및 불량주택에 대한 인천 차원에서 접근과 분석을 통해 사라져가는 주거문화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지역문화사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연구결과 개항이후 우리나라의 주택은 급격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항과 더불어 일본식 주택과 서양식 주택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1930년대 이후에는 상품으로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주택 유형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해방이후에는 더 많은 서양식 주택의 유입이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오늘날의 주택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에 기반을 둔 평면을 바탕으로 외형적으로 서양식 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외래 주거가 유입되는 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 전통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축되었으며, 일본인에 의해 건축된 집도 우리의 주거습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주거형식은 다른 주거문화를 받아들이는 주체적 근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갖춘 주택설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과 인천지역 주거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중국인에 의해 건축된 주거건물,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도시형 한옥에 대한 분석과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된 일식주택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주거문화에 맞게 개선한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후, 일식주택의 개조사례를 중심으로 거주자에 의한 평면변화에 대한 거주 의식, 주거관습,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대주택으로의 변화과정을 도출하는 연구, 중국 건축물에 대한 연구, 육지집과 섬집의 평면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인호·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서울 : 세진사, 2001)
2.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서울 : 민음사, 1992)
3. 양윤재, 『저소득층의 주거지형태연구』 (서울 : 열화당, 1991)
4. 김태영·이광노, 「한국개항장의 외인관 연구 I-인천체물포항-」,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2호, 1988)
5. 노상주,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지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 박민수, 「강화도 전통민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7. 손장원 외 3인, 「인천시 도서지역조사연구(1) 중구 운북동 예단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v.13, n.2, 1993)
8. 손장원 외 3인, 「인천시 도서지역 조사 연구(2) 중구 중산동 구읍마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v.16, n.2, 1996)
9. 이관구, 「불량주거지의 공간특성과 주거형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 정연상, 「경기도 전통민가의 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권6호, 2004)
11. 홍석일, 「인천 개항초기(1883~1910) 현존 양식주택의 외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